대행 스님



# 모든 게 돌아가는 이치가 이 마음의 놀음이에요, 마음놀음!

**왜 마음공부를 하라 하시는지요**

**문)**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그냥 생활 속에서 바르게 살면 되는 거 아닌지요. 그런데 왜 굳이 마음공부를 하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 우리가 왜 이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몸뚱이 속에 그 악업 선업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움죽거리려면 사대와 더불어 육근이, 육근과 더불어 육진이, 육진과 더불어 육식이, 즉 말하자면 모든 의식이 바깥으로 들고 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뚱이 속에서 자기가 지은 대로 거죽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이 다 지수화풍으로 인해 이 몸뚱이가 물질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또. 안 그렇습니까? 이건 물질입니다. 그런데 지수화풍으로 이게 대두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지수화풍에 의해서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거기에 재료로써 충만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전력도, 발전소가 한계가 있지만 무심 발전소는, 인간의 참 발전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력도 내가 큰 거를 쓰려면 크게 끌어서 쓸 수 있고 작게 쓰려면 작게 끌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대두돼 있다는 얘깁니다, 광력도 그렇고 통신력도 그렇고. 내가 한생각을 하면 모든 게 머리에, 즉 말하자면 두뇌로 올라가서 사대로 흩어져서 통신이 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증명되지만 과학적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이 몸뚱이 속에 그렇게 있는데, 이 시쳇말로 말하겠습니다. 오신통 하면 그 속에는, 즉 말하자면 천안통, 천안통이라면 속눈이라는 얘깁니다, 마음의 눈. 듣는 것도 마음의 귀. 남의 속을 아는 것도 마음으로 남의 속을 알 수 있고 남의 과거생도 내가 알 수 있는 거. 신족,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갈 수 있는 거. 지금도 집 밖에 앉아서 집에 갔다 와 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쳇말로 말하겠어요. 컴퓨터, 팩스, 또는 탐지기, 천체망원경, 천체무전통신기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대두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있음으로써 여러분이 시스템이 되어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작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살던 인연으로 인해서 뭉쳐진 그 모습들, 생명들이, 그 의식들이 전부 이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어서 지금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전부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자 운명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모면하려면 과거에 거기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오는 그 컴퓨터에다가 다시 입력을 한다. 모든 내 생활을 전부 다시, 앉았다 서는 것도 모든 게, 말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용도에 따라서 어떠한 악행, 병고, 액난 등 이렇게 전부 들어오는 거를 다 '아하! 이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 내가 컴퓨터에다 다시 입력을 해야겠다.' 하고 맡기는 겁니다. 믿고 맡겨라 이겁니다. 자기 주인을 믿고 맡겨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허공을 믿습니까, 이름을 믿습니까. 또 이 고깃덩어릴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대신 못해 주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죠. 잠자는 것도 대신 못 자 줘, 똥 누는 것도 죽는 것도 자는 것도 먹는 것도 모두가 못해 준단 말입니다. 대신 누가 해 줍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대신 못해 주느니만큼 자기 주처, 즉 말하자면 한울의 뜻도, 태양의 뜻도 근본이 어디에 있나. 인간의 마음에 직결돼 있다. 이 세상 살아나가는 이 생활 가설이 된 것은 근본이 어디에 있나. 인간의 마음에 가설이 돼 있다. 그러니 천지인, 이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주인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야 하는 인간으로서 어찌 내가 온 곳을 모르고 내가 갈 곳을 모르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 되겠습니까?

그러니 만약에 그 컴퓨터에 다시 입력을 해서 '주인공, 당신만이 나의 아픔도 해결을 해 줄 수 있어.' 하고 믿는다면, '당신만이 내 앞길을 이끌어 줄 수 있어.' 하고 믿는다면, '당신만이 내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줄 수 있어.' 하고 믿는다면, 모든 것을 거기다 맡기고 '내 일상생활을, 일체 만법을 다 들이고 내고, 내가 사는 거 전부 내 주인공이 살게끔 이끌고 간다.' 이렇게 믿는다면 거기에 다시 입력이 돼 가지고 앞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입력됐던 그 팔자 운명 또 영계성 세균성 유전성, 그 모든 병고나 모든 일체가 다 무너집니다. 업보가 다 무너지는 거죠. 인과가 무너지고. 여러분, 카세트에다 노래 넣어 가지고 다시 노래를 넣을 때에 앞서 노래 넣은 건 지워지죠? 안 그렇습니까?

그와 같이 팔자 운명이라는 것이 다 그냥 삭쳐 무너져 버리니 자기가 지은 것을 자기가 지울 수밖에는 없는 거죠. 남이 해 줄 수가 없어요. 남이 팔자 운명을 갖다 줄 수도 없고 남이 뺏어 갈 수도 없고 말입니다. 누가 죄를 지으라고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죄를 벗겨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이 자기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재료가 있으니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영원한 친구예요. 자기 주인공이 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끌고 나온 그 영원한 친구예요. 그런데 그걸 못 믿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부처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시오." 하고 있으니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모든 것을 '주인공, 당신만이 내 영원한 친구요, 내가 당신 생각나는 대로 움죽거려 주는데 내가 당신 심부름을 하려면 잘 이끌어 줘야 심부름을 하지 않느냐.' 하고선 거기다 맡겨 놓을 때에 비로소 업보라든가 병고라든가 이런 것이 낫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는 100% 중 30%밖에, 40%밖에는 병원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럼 70%나 60%는 누가 충당을 하나요? 바로 여러분이 해야죠? 누가 해 주지 않아요. 병고뿐만 아니에요. 모든 전체 살아나가는 일체가 다 그렇습니다. 누가 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 허공에서 해 주나요? 신이 바깥에 있어서 해 주나요? 나 자신도 못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딴 신이 자기를 도와줄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주인공에다 맡겨 놓고 '한마음 주인공!' 한다든가 '한마음 친구'라 한다든가, '주인공, 영원한 친구야!' 한다든가 그냥 '친구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깊은 속에서 진짜로 믿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놓게 되면, 아주 맑은 물에 내 얼굴도 비출 수 있고 달빛도 비출 수 있듯이 그렇게 내 마음이 맑아지고 편안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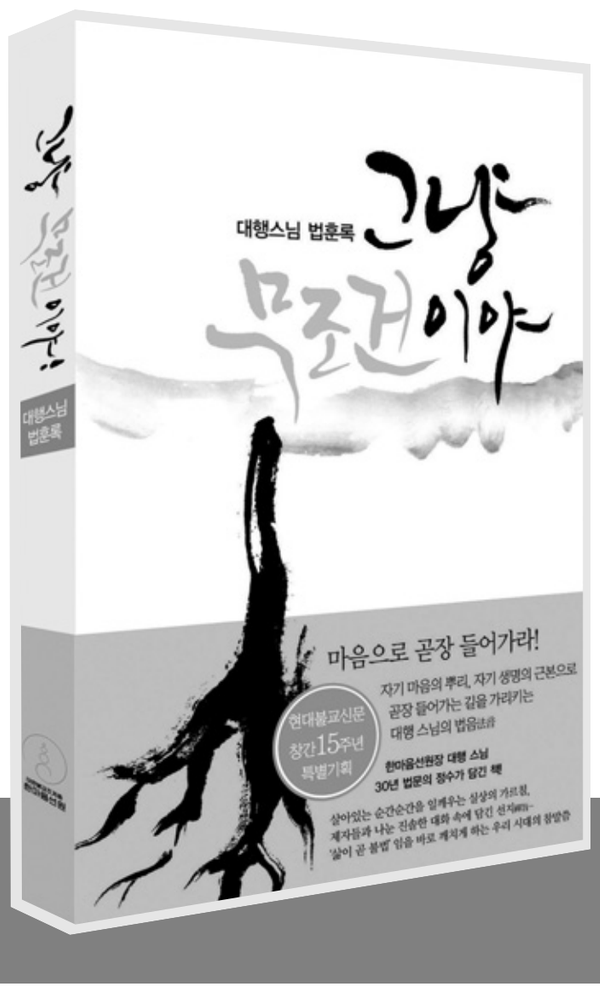
마음은 체가 없어서 어떤 애고가 수없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그 마음은 빛보다 더 빨리 가서 벌써 전달을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 모든 게 돌아가는 이치가 모두 이 마음의 놀음이에요, 마음 놀음.

여러분이 병고가 생기는 것도 이 몸뚱이 집이 비면 집이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와 같이

그림 · 최주현

☞ 30면으로 계속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 자기가 지은 거 자기가 지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 29면에서 계속

내 마음 이 자체의 주인이 없다면 이 집은 빈집이 돼서 병고가 나고, 이 공장 하나만 망가져도, 간장 공장 하나만 망가져도 이 기능이 다 망가져요. 안 그래요? 방광 공장만 망가져도 그렇고 콩팥 공장이 망가져도 그렇고. 심장 공장이 망가지면 더하고, 또. 그러니까 이 공장, 공장장들을 지배를 하고 그러는 거, 직원들을 지배하는 거는 전부 내 마음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이 마음 나기 이전은 뭐냐. 자기 영원한 친구가 거기 주인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천지에 직결된, 이 세상에 직결된 이 인간의 마음, 이것이 참으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것이며 또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는지요**

**문)** 스님께서는 내가 죽어야 나를 본다고 강조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죽일 수 있을까요?

**답)** 이 우주 전체의 생활이 인간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 살아나가는 건 이 마음 근본에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이 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놓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죽이는 거라고요, 그걸 알면. 한군데다가, 한마음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맡기고 살면 그게 죽이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즉 말하자면 마음을 내기 이전은 기름과 같고 마음을 내는 것은 차를 끌고 다니는 바로 법이 되고, 그러니까 몸이 움죽거리는 건 차와 같다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의 근본과 마음 내는 거, 육신이 움죽거리는 거, 이 삼합이 한데 합쳐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그대로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또는 먹는 거, 가고 오는 거, 만나는 거 하나도 고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걸 공했다고 하고 그거를 놓고 가는 거라고 하고 그거를 죽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를 해 보면 여러분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잠깐 사이에 아내가 와서 "여보!" 그런다면 바로 남편이 자연스럽게 되고 또는 "아빠!" 하고 부르면 자연스럽게 아버지 노릇을 하죠. 그런 많은 이름들을 자연스럽게 자기가 해내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찰나찰나 이렇게 아버지, 남편으로 착을 두지 않고 지금 그대로 돌아가는 그 도리를 알면 바로 죽이는 거다 이겁니다. 그거 놓고 돌아가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불바퀴는 항상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그냥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항상 그게 지금 습관에 의해서, 물질적인 습관에 의해서 항상 이게 옳으니 이게 그르니 이러기 때문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다 이겁니다.

사람은 항상 마음에 의해서 모든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데 내 과거에 살던 그 자체가 현실에 인연으로 인해서 인과가 돼서 내 몸뚱이 속에 짊어지고 모두가 나왔기 때문에 그 몸뚱이 속에, 즉 말하자면 그 많은 생명이 13억이라고 해도 고건 간단히 추린 건데 그 의식이 만약에 한마음에서 수만 개도 나올 수 있으니깐 그건 숫자적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많은 의식들이 내 한마음에서 좋게 생각하면 좋게 따라 주고 언짢게 생각하면 언짢게 따라 주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남과 나와 더불어 같이 이익하게 생각을 한다면, 자기가 앞으로 나가는 데도 모든 거를 용도에 따라서 좋게 생각을 하고 아주 이익하게만 생각한다면 그 몸속에 있는 그 의식들이 다 그 이익한 데로 따라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불가에서 말하는 숙명통이라는 것은 비유해서 말할 때 컴퓨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과거에 거기 입력이 됐던 것이 현실에 나오는데 현실에 이 용도에 따라서 내 앞에 병고라든가 가난이라든가 또는 우환이라든가 어떤 안되는 일이라든가 모든 일체를 거기다가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 과거의 모든 그 입력됐던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팔자나 운명 같은 것이 다 좋게 바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모든 거를 자기 한마음 주인공에 맡기고 사는 것이 바로 죽이는 거며, 바로 입력을 다시 되시키는 거며, 앞서 입력된 게 다 없어지는 거며, 동시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벌써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가정에 우환이 있던 게 없어지고 병고가 없어질 수도 있고 모든 가정이 화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없다면 상대가 없으니까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고 모든 걸 거기 맡겨 놓는다면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앞서의 입력된 팔자나 운명은 다 녹아져 버리고 자유인으로서의 그 광대무변한 인간 자체의 삶을 맛볼 수 있으니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사 상차림을 간단하게 하는 뜻은**

**문)**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절에 다니고 있는데 선원에 아는 인연이 있어 천도재에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절처럼 음식을 많이 차려 놓지 않고도 정갈한 상차림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차리는 뜻이 무엇인지요?

**답)** 우린 재사 지낼 때 과일만 놓고 둥근 떡 하나 놓곤 그냥 지냅니다. 누구든지 신도들도 다 그렇게 하라 그래요. 집에서 제사 지낼 때도 일 다니는 사람은 아침에 떡집에 전화 걸어놨다가 그냥 저녁에 퇴근하고 갈 때 들고 가서 지내라고 그래요. 편안하게 그렇게 해야죠.

> 자기가 없다면 상대가 없으니
>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고
> 모든 걸 주인공에다 맡겨놓는다면
>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 그래서 앞서 입력된 팔자나 운명이 다 녹아져 버리고
> 자유인으로서의 광대무변한 그 인간 자체의 삶을 맛볼 수 있으니
> 이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살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의식주가 그렇게 중요하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딱 상세계에 오를 때에는, 그 의식적으로 벌써 먹고 입고 살던, 뭐 이런 거에 착을 두기 때문에 영 상세계로 올라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의 영령들을 아예 재사 지낼 때 그냥 둥근 떡 안에다가 다 그냥, 그러니까 우주 전체 안에다가 '이 우주 전체 안에 있는 거는 당신 거요.' 그러곤 그냥 다 거기다가 넣어 드리는 거죠.

그러면 먹고 사는 데에 대한 애착, 그런 게 다 떨어져요. 그래야 상세계에 보살로 출현을 하시든가 뭐 또 선관선녀로 출현하시든가 부처로 하든가 뭐, 뭐가 돼야지 되지 않겠어요? 우리 중세계만 생명들이 산다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지구만 생명이 사는 게 아니니까요.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뜨거운 데서도 생명이 있고 차면 찬 대로 생명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재사를 지낼 때 둥근 떡, 어떤 집은 영령들이 많거나 또 식구들이 많은 집은 일곱 켜를 해 놓고, 찰떡을 그릇에다 이렇게 해도 좋고 백설기를 둥그렇게 해도 좋아요, 아무것도 넣지 말고 설탕만 좀 넣고. 그렇게 해서 놓으면 이 우주의 그 근본이 다 응감을 하게 돼 있어요. 우주의 근본이 다 응감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법신들이 다 내려보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는 사람 움죽거리는 거까지 사왕천에서 다 이렇게 통해서 누구나 어떠한 영가든지 다,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려면 막대기 기다란 데다 굵은 사탕 하나 낀 것처럼 끼워 가지고, 이게 법륜이거든요. 그것이 표시예요. 그것만 들었다 하면 무사통과죠, 모두가.

그런데 여러분은 도무지 그 도리를 하나도 모르니…. 너무나 이 도리를 몰라서 오히려 핍박을 받고 그 도리를 몰라서 오히려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고, 그 도리를 몰라서 울고불고 야단법석이고 아, 이러니 글쎄 내가 어떻게 애원치 않겠어요?

**힘들면 점을 보러 가게 됩니다**

**문)** 부끄럽습니다만 마음공부를 한다 하면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결국 점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게 쉽고 빨리 해결될 것 같아서요. 스님, 제가 마음이 바깥으로 새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답)**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은 오히려 더뎌 가는 거고 그거는 기필코 빠르게 가는 길이 못됩니다. 그러니까는 내 주인공은 내 보디가드처럼 항상 지니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나, 즉 말하자면 아프거나 그래서 관하면 의사로 찰나에 바뀌어지고, 또 어떠한 일이 생겼다 하면 관세음이 되고, 좋은 데로 간다 하면 지장이 돼 주고, 칠성부처가 돼 주고, 지신이 돼 주고, 용신이 돼 주고, 허공신이 돼 주고 뭐, 별거 별거 다 돼 줍니다. 그렇게 찰나찰나 바뀌는데 뭐가 답답해서 바깥에 가서 그렇게 묻고 다닙니까, 바빠 죽겠는데. 말을 해도 얼른 자기한테 하는 게 더 빠르지 나가서 하는 게 빠릅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는 곧바로 그냥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게 그렇게 듣느냐 안 듣느냐도 문제지만 올바로 나가는 게 못되고 또 빠른 길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와 내가 그렇게 빠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와 내가 더 빠르지 누가 더 빠릅니까? 그러니까 정히 답답하면 '야, 아무개야!' 자기 이름을 자기가 세 번 부르고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아귀를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소리를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길에 가다가도 하고 앉았다가도 하고 섰다가다 하고 뭐, 그 누구하고 같이 있다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 그냥 재깍, 재빨리 통신이 된단 얘깁니다. 그렇게 빠른 거를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부처님에 직속, 즉 말하자면 통신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아니면 제삼자가 자기를 대신 살아줄 리 없고요. 그러니깐 꼭 여러분 개개인이 자기 아닌 자기를 꼭 믿어야 합니다. 믿고 그렇게 통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고 그런다 해서 나가서 그렇게 물어보고 다니지 마시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다니면서 잘못된 거는 거기다가 관하시란 얘깁니다. 거기다 관하시면 그것이 슬금슬금 돌아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깨달을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문)** 스님께서는 치열한 산중고행으로 득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같이 어리석은 범부들도 바쁜 생활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물론입니다. 누구나가 다 잘살든 못살든 또 못났든 잘났든 자기 영원한 자기의 생명의 근본 불성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불성은, 즉 말하자면 지금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이름해서 말합니다마는 그 주인공이라는 것은 참 광대무변하고 묘하고 각자 자기들의 보배인 것입니다. 그 보배를 보배답게 쓰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혼란이 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싸우게 되고 가정적으로도 싸우게 되고 나라, 나라끼리도 싸우게 되고. 또 싸우는 거뿐만 아니라 강도도 많이 생기고 사기도 많이 생기고, 이건 불난 이 한두 건이 아니죠. 애들 자라는 것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랬지요. '네 나무는 네 뿌리부터 믿어야 한다. 그 나무와 뿌리와 같이 항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질 않고 남의 이름과 남의 형상을 믿고 기도를 하니 그것은 몇백 몇천 년 가도 자기를 바라볼 수가 없는 이치가 있다. 그러니까 너만이 너를 의지하고 살아라. 너만이 너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부터 믿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정신계의 근본이라고 봅니다.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 자비의 미얀마 돕기

##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국제붓다자비봉사단)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